

## “신토불이 토종닭 살리기 운동”에 적극 협조를...

◇ 정리 / 김동진 기자

본고는 지난 1965년 부산에 처음 터를 잡고 양계업과 인연을 맺은 후 36년 동안 육계 및 개량 토종닭 업계를 이끌어 나오면서 현재는 충북 보은에서 부회장 및 농장을 직접 관리하고, 대전과 서울을 기점으로 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개량 토종닭의 참 맛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순오(죽전부회장 대표, 한협협력회 회장) 사장을 만나 개량 토종닭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및 금년도 가을철 토종닭 전망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편집자주-

### Q : 최근 개량 토종닭 산업 현황은?

▲이순오 : 우리나라 토종닭 시장은 어렵잖아 전체 닭고기 소비의 17~18%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40대 이상의 국민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젊은층을 겨냥한 닭 불고기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우리의 참맛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종닭 산업은 전반기 동안 생산비를 웃도는 시세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지난해의 적자를 어느 정도 만회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추석 닭 입추가 거의 끝난 시점에서 병아리가 과잉생산되어 100원짜리 병아리가 거래되는 등 과거와 같은 양상을 보이며 토종닭 업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대형 육계계열업체에서 토종닭까지 유통에 손을 뻗으면서 영세한 토종닭 업자들의 삶의 터전까지 빼앗고 있어 신토불이 토종닭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일제당에서 혼동영농조합법인의 설립으로 토종닭의 브랜드화를

추진해 농가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어 고  
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Q : 개량 토종닭 산업의 당면문제는?**

**▲이순오** :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생존  
권이 대기업들의 횡포와 정부의 무관심속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데 개탄을 금치 못합  
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지금 (주)하림에서  
는 일반 전용 육계와 함께 일반 토종닭까지  
도 유통을 하고 있으며, 기타 계열업체들도  
이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존 육계 유통망을  
통해 토종닭을 납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영역을 확장하기 위  
해 수당 3,200원의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덤핑을 치는 바  
람에 생산자들  
은 물론 납품업  
체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들이 토종닭 사  
업에 뛰어드는 것은  
전문 육계업 만으로는  
돈벌이가 되지 않기 때문  
에 힘의 논리로 사업만  
방대하게 늘려 놓으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는 우리 토종닭을 영위  
하는 농가들을 중심으로 농림부에 진정서를  
준비하고 있고, 대기업 횡포에 대한 허와 실  
을 파헤쳐 우리 생존과 신토불이 토종닭 살  
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  
리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이 업체  
에 닭을 공급하는 관련농장에 닭을 분양하지  
않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나아갈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우리 고유의 식품을 보호하는 차  
원에서 경제논리만을 적용하지 말고 진정한  
토종닭 살리기에 뜻을 같이 해주었으면 합니  
다.

**Q : 가을 병아리 입추현황 및 전  
망은?**

**▲이순오** : 우리나라  
의 특성상 토종닭의  
소비는 주로 여름  
철에 이루어지고,  
말복이 지나면  
추석 때를 제외  
한 시기에는 전  
체적인 소비가  
감소세로 돌아  
서는 것이 연례  
행사로 이루어져  
왔지만, 과거 가든  
이나 식당만을 상대로  
판매되던 때와는 달리  
최근에는 대형 마트나  
할인점 그리고 백화점  
까지 주문, 판매가 이루



△ 36년 동안 토종닭업계를 이끌어 온 이순오 죽전  
부화장 대표

어지면서 연중 소비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절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종계를 공급하는 원종계(GPS) 농장이나 CC를 공급하는 종계장에서 계절적인 소요량을 파악하여 공급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가을 토종닭 업계는 가격하락으로 인한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많은 사육농가에서 조심스럽게 입추를 계획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볼때 올 가을 전망은 그리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 개량 토종닭 산업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은?**

**▲이순오 :** 토종닭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자료부재, 유통기반의 취약성, 계절적인 소비편중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어 합법적인 종계가 분양될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힘을 써주어야 할 것이며, 이로써 종계수수가 정확히 파악될 수 있도록 유도해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좋은 상품과 품질을 공급할 수 있는 직판 형태의 유통체제 구축, 비수기때에 효과적으로 종란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닭고기가 세일품목으로 팔려나가면서 토종닭까지 싼 물건으로 취급받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으며, 판매점에서의 결제기간도 50~60일로 되어있어 직접 현금을 주고 사료를 먹여 키운 닭을 제때

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닭고기를 취급하는 계열업체들이 진정 생산자들 편이라면 서로 힘을 합해 닭고기를 세일품목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노력한다면 지 결제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쪽에 힘을 기울여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생산자와 유통업체들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게 지속적인 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고기도 최고의 육질의 맛을 내는 50~60일 기른 2kg정도의 닭을 공급하여 우리 고유의 맛을 찾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가야 하겠습니다.

**Q : 한협협력회 설립과 추진 방안은?**

**▲이순오 :** 지난해 10월 개량토종닭 시장의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불법 종계를 근절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한협협력회는 매월 정기회를 통해 토종닭의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의 정보수집 및 교류를 활성화하여 안정된 개량토종닭 시장여건을 마련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에서는 “신토불이 토종닭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우리업을 위협하는 대기업들의 횡포를 끝까지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아갈 것입니다.

내년 이순(耳順)을 바라보는 나이에 우리 토종닭에 종사하는 농가들의 안정적인 사업영위와 토종닭이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로 올바르게 자리잡혀 갈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고 이 자리를 물려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바램은 없습니다. **양계**